

지역 단위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Movement of Provincial Level

— With Special Reference to Gyeonggy-Do and Gyeongsangbuk-Do —

김 종 성(Jong-Sung Kim)*

〈목 차〉

- | | |
|--------------------------|----------------------|
| I. 서론 | Ⅲ.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
| Ⅱ.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 1. 전개 양상 |
| 1. 전개 과정과 내용 | 2. 성격과 의의 |
| 2. 성격과 의의 | 3. 과제 |
| 3. 한계 | Ⅳ.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통해 지역 단위 학교도서관 운동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성공 요건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지방행정 당국이 지원하는 민관협력체제로 진행된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는 교육행정 당국에서 주도하여 전문 사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의 조건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운동, 사서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chool library movement of provincial level. For the purpose current school library movement of Gyeonggy-Do and Gyeongsangbuk-Do are analyzed. The writer looks into motivations, strategies, accomplish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s at the viewpoint of comparison.

Key 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movement, School librarian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kjs1010@kmu.ac.kr)

• 접수일 : 2003. 11. 27 • 최초심사일 : 2003. 12. 11 • 최종심사일 : 2003. 12. 15

I. 서 론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빈사상태에 놓여 있던 학교도서관이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열망이 변화된 사회 여건과 반응하여 분출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급기야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으로 연결되었고 이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전국의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바야흐로 학교도서관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변화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두 지역이 있다. 어쩌면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곳은 경기도이며 다른 한 곳은 경상북도이다. 이 두 지역은 도 단위의 학교도서관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사업의 주체와 계기, 그리고 내용 등에서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섬세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무척 흥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계기가 된 지역 단위 운동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를 탐색한다. 도 단위의 운동 에너지와 행정 역량 속에서 전개된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성격과 의의를 탐색해 봄으로써 지방의 에너지를 토대로 한 학교도서관 운동의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둘째, 두 지역에서 전개된 학교도서관 운동이 현재 진행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전국단위에서 전개되는 학교도서관 사업의 계기와 성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것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두 지역에서 전개된 학교도서관 운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 단위 운동의 원리적 모델을 탐색해 본다. 두 지역의 학교도서관 사업은 뚜렷이 비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과 그 장단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로 전개하는 학교도서관 사업의 전략과 방법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II.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1. 전개 과정과 내용¹⁾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출발점은 1996년 수원여성회에서 개최한 수원 시민 대토론회를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아이 독서환경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학교도서관의 피폐상을 부각하게 되고 학교도서관 개선을 위한 시민 단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²⁾.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수원여성회에서 입안한 '학교도서관 사서 파견 사업' 계획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수원의 사업에 힘입어 1999년 3월에는 안산의 상록수문화사랑회에서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5월부터 초등학교에 사서를 파견하게 된다. 그리고 군포에서도 1999년 5월 군포경실련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7월부터 각급 학교에 공공근로 형태로 사서 파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1998년과 1999년에 수원, 안산, 군포 세 지역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파견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지역에서 전개된 사서파견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모범적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 방침과 사서들의 처우와 신분 문제 등으로 이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위기 상황에서 세 지역의 시민 단체들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주체를 만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이다. 1999년 12월에 결성된 이 협의회는 경기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조직 사업으로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계획하게 된다.

협의회가 결성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첫 해인 2000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5억의 예산을 들여 수원, 군포, 안산, 안양 등 4개 지역에 82명의 사서를 파견하였다. 비록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도서관은 변하였고 학교 안팎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시민단체와 도 행정 당국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
- 1)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1);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민관협력사업 평가토론회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3) 참조.
 - 2) 한옥자,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의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민관협력사업 평가토론회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3), p.3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2001년에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총 15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4개 지역에 의정부, 안성, 성남을 추가한 7개 지역 132개교에 사서를 파견하게 된다. 특히 이때부터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켜 문화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학교도서관에 파견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효과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한다. 한편 도 행정 당국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전개하는 학교도서관 사업에 자극 받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독자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를 파견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결국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사서파견 사업은 도 행정 당국과 도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동시에 전개되게 되었다.

2002년에는 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총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7개 지역에 오산, 고양, 파주를 추가한 10개 지역 180개교에 사서를 파견하게 된다. 그런데 2002년 7월 도지사가 바뀌고 도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도 행정 당국이나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비협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주체였던 시민단체는 도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경기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고 정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³⁾.

<표 1>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주요 일지

연도	주요 사업 및 경과	운동의 외적 성과
1996	수원여성회, 수원시민대토론회 개최-학교도서관 문제 제기	
1998	수원여성회,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사서파견 사업 시작	모범적 공공근로 사업 평가
1999	-안산 상록수 문화 사랑회,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사업단 구성, 사서파견(3월) -군포 경실련,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사업단 구성, 사서파견(5월)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결성(12월)	도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확보
2000	-지역: 4개 지역: 수원, 군포, 안산, 안양 -예산: 5억 -파견 사서 인원: 82명(82개교)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출범
2001	-지역: 7개 지역: 4개지역 + 의정부, 안성, 성남 -예산: 18억 -파견 사서 인원: 132명(132개교)	-경기도 교육청 일용직 사서 250명 파견 -교육인적자원부 내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2002	-지역: 경기도 전역 -예산: 24억 -파견 사서 인원: 180명(180개교)	-경기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48억 투입 -교육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발표
2003	운동의 주체 지방정부 출연기관인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	-경기도 교육청 256명 사서 파견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시행

3) 김종성,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9), p.73.

2. 성격과 의의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의 성격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민단체의 리더십에 의한 학교도서관 운동의 모델 제시

과거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전적으로 학교 내부나 전문직 내의 인적 요소와 에너지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운동의 성과를 확보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그 출발과 전개 과정에서 학교 외부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학교 밖의 참여와 지원이 강조되고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운동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외부의 민간단체는 현장의 일상에 매몰된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에 비해 명확하고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객관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 개혁을 위한 순수하고 뜨거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체로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학교 외부의 시민단체가 가지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개혁적 리더십이 발휘된 운동으로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학교도서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들을 규합하여 실천한 시민운동으로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2) 성공적인 민관 협력 체제 형성

이 운동이 출발부터 민관 협력 체제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던 학교도서관 개선 사업이 공공근로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정부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시민단체는 운동의 내용과 지도력을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이다. 3년 간 연인원 약 400명의 사서를 현장에 파견하여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고 활성화한 것은 모두 이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게 해 주는 물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운동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은 이 운동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의 전략적 성과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민과 관이 서로 무관하게 또는 배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며 선의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회복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수십 년간 침체된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을 깨워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1970년대부터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보면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약 30여 년간 잠들어 있던 학교도서관 운동을 흔들어 깨우고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주로 서울 지역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여 침체된 운동 지형을 자극한 바 있다⁴⁾. 그러나 그것은 현장 사서교사들의 전문적 의식과 필요에 기반한 전문직 조직 재건 활동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그 성격이나 성과, 그리고 영향력의 측면에서 본격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이라고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도 그 시발점을 1996년 수원여성회의 ‘수원시민 대토론회’와 같은 활동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장 교사들 중심의 움직임에 비해 결코 뒤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을 본격적으로 회복한 계기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성과 자극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현장 실천 운동으로서 학교 현장의 개선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시에 학교도서관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으로서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에너지는 2000년에 전국단위의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인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의 출범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조직을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2002년에 학교도서관 현장 개선을 위해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컨대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에너지가 전국 단위의 학교도서관 운동 조직을 태동하게 하였고 이러한 에너지가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해 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전적으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에너지가 핵심적인 역

4)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0).

함을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03년도에 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끌고 가기 위해 장학체계를 확충한 것이다. 어느 시·도에서도 볼 수 없는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 발전의 성과를 확보할 실제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도교육행정당국의 정책적 개선도 그간 시행된 학교도서관 운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운동이 현장 운동이면서 동시에 제도화 운동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 성격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운동의 성과는 바람직한 운동의 전형을 제시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이 낙후한 것은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향후 학교도서관 발전에 무척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조직적으로 전개된 실천 운동

사실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 단계부터 튼튼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이끌어간 조직적 역량은 운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1999년까지 수원, 안산, 군포 등 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던 학교도서관 사서파견 사업이 1999년 12월에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그 이후에 참여 단체가 늘어나고 지역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역량의 비중이 커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사업의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참여 단체가 증가하였음에도 운동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확대하였다는 것은 이 운동을 이끌어간 조직적 에너지의 탁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이 운동이 실천운동으로 전개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직적 여건과 역량이 충분치 못하였다면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현장 실천 운동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운동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 운동 주체들을 통합하고 리더한 조직적 역량은 우리 학교도서관 운동에 많은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현장 실천 운동으로서 성과 확보

많은 경우 학교도서관 운동은 다분히 캠페인식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언론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현장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성과는 미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는 단순한 캠페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이익을 안겨준 현장 실

천 운동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많은 학교에 사서를 파견하여 학교도서관을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독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현장 실천 운동의 성과를 크게 확보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끌어내는 전략과 전술이야말로 현장 실천 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계

경기도 학교도서관 운동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학교도서관 운동사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계와 약점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이 처한 총체적인 현실의 열악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여러 관련 주체들의 인식과 역량 부족, 그리고 현장 사서들의 신분적 한계와 학교도서관의 미비한 물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1)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비조준성(非照準性)

먼저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과정에서 관찰되는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비조준성(非照準性)은 운동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중심에 두어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주변적이거나 다소 부차적인 기능이 부각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수 학습 과정에의 개입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수 학습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 독서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도 여기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내용적 초점은 학교도서관의 교과과정 개입 활동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이 점에서 충분치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선 경기도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시한 각종 교육과 강습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⁵⁾. 필자가 확보한

5)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각종 연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 연수 과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다.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론적인 내용과 독서지도 관련 내용, 그리고 전산화를 위한 실무 기술적 내용이 그것이다. 이 자료들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수 학습 지원 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학교도서관 교과과정 개발과 적용에 관한 내용이나 효과적인 협력 수업을 위한 방안, 학교도서관의 교육 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과 비교해 보면 무척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되고 발전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학교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교수 학습 지원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것이다⁶⁾. 그리고 이러한 점이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과를 확대한 주요 조건이 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현실도 이러한 한계를 조장하는 요소가 된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시설, 공간, 자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관심은 학교도서관의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고 물리적인 요소를 채우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일차적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본 형식 확립에 그 에너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도 이런 조건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필요 불가결성과 그 운영 인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길은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 영역의 기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이러한 한계는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동 리더십 내부의 전문성 부족

위의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의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이 비전문적이며 초보적인 면도 하나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운동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시작하고 주도한 세력이 학교 내부의 사서교사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시민단체이며 거기에 협력한 지방정부도 교육 행정 당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적 기제의 가동 원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계의 전문가나 전문 사서(교사)들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 가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당국의 경영자나 교사들의 인식 수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학교

(수원: 동협의회, 2001); 학교도서관 문화봉사자 교육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1); 학교도서관 문화자원봉사자 심화교육 2001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1); 2002 실무자 연수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2); 2002 참가자 워크샵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2); 2002년 신입사서교육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2).

6) 김종성, 전게서, pp.50-54.

도서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은 그것이 단순히 공간과 물질적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단순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공간일 뿐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인식할 뿐이다. 학교도서관이 그 자체로서 능동적인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수준과 요구를 제한하게 되고 나아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왜소화하게 한다.

3) 사서들의 신분적 한계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서 파견한 사서들은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갖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교수 학습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 학습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자가 교사의 지위와 신분을 확보해야 하며 거기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운동 과정에서 파견된 현장 사서들은 계약직 사서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교수 학습 과정에의 자연스러운 개입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의 역할과 활동은 학교도서관 관리와 운영이라는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의 학교도서관 운영 활동도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에 조준되지 못한 채 그때그때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다⁷⁾.

4) 운동의 지속 조건 미확립

경기도 학교도서관 운동을 두고 볼 때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것은 이 운동의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이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이후에도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시민단체의 손을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시민단체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이 결합되어 성과를 거둔 것인데, 이제 이러한 협력 관계가 해체된 것이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에서 시민단체의 지도력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운동의 주도세력이 제외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 운동을 이끌어온 인식과 실천력이 정부 당국과 학교 현장에 충분히 이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보여준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정부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도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구도의 변화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운동의 지속적인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의 지속적 전개에 대해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학교도서관 존속에

7) 김종성, 전제논문, p.90.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 배치의 한시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서를 현장에 파견하여 학교도서관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였지만 사서(교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보편적 제도화 조건으로서 전문 전담인력의 배치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한계는 이 운동의 성과 자체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Ⅲ.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1. 전개 양상

경상북도에서 학교도서관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200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부임한 김선평의 주도로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0년에 우선적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1교 1도서관 정책을 시행한다. 그 결과 2000년에 70%를 밀들던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2001년 말에 이르러 95%로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2000년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을 제작하여 도내 전 학교에 보급한다. 이 편람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략판 KDC를 수록하여 비전공 담당교사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이 밖에도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3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도내 전체 198개 고등학교와 23개 독서교육 거점 초등학교의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한다. 그리고 2001년에는 중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무엇보다도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의 핵심은 전문 전임 사서교사를 배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1998년에 배치된 사서교사 1명이 정규 사서교사의 전부였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진행되면서 2002년에는 22명의 사서교사를 신규 임용하게 된다. 이 인원은 2002년 전국 사서교사 신규 임용 인원인 33명의 6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3년에는 11명의 사서교사를 신규로 임용하고 2004년에는 13명의 사서교사를 신규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최근 3년간 47명의 사서교사를 임용하게 된다⁹⁾. 이 인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에서 임용되었거나 임용될 사서

8)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대구: 동교육청, 2000).

9) 2003년에는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의 영향을 받아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사서교사를 11명 신규 임용한다.

교사 총 인원 112명의 약 4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만 가지고 보아도 최근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어떤 성과와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 2002-2004 사서교사 신규 임용 현황 (단위: 명)

연도 \ 구분	전국(A)	경상북도(B)	A/B(%)
2002	33	22	66
2003	45	11	24
2004	34	13	38
계	112	46	41

2. 성격과 의의

1) 지방 교육행정 당국이 주도한 자발적 학교도서관 사업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의 특성으로 우선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과 리더십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앙 교육행정 당국의 지시와 지도에 의해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은 사업 주체와 계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처럼 실제적으로 중앙 집권화 되어 있는 교육체제 속에서 지방 교육행정 당국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개 중앙 교육행정 당국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그 범위 속에서 지방 교육행정 당국의 교육 정책이 시행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상북도에서 독자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의 교육행정 당국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지도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이 자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간 것이다¹⁰⁾.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는 교육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사업도 결국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이 어떤 관심과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도서관과 같이 교육 현장의 기제가 개선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행정 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자발적인 인식과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런 점은

10) 경상북도 교육청의 김선평 장학사가 학교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내에 담당 부서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부서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이 중앙 교육행정 당국의 업무 범위 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 학교도서관 운동과 비교되는 점이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전개되었지만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은 교육행정 당국 내부의 깨달음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1960년대에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경상남도 학교도서관 운동과 흡사한 면이 있다¹¹⁾. 경상남도의 경우 도 교육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교육감이 리더하고 담당 장학사가 실행하는 체제로서 이상적인 구도를 이룬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담당 장학사가 도 교육행정의 최고 결정권자를 설득하여 사업을 이끌어 간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지방의 교육 행정 당국이 학교도서관 사업을 인식하고 지도해 나갔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이 오랫동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대표적인 공교육 부실의 징후로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 교육행정 당국이 학교도서관 사업을 행정력의 역량 속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기제가 결국 개별 학교에 소속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교육행정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하며 교육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행정 당국의 의식적 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기제로서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관심과 보호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도 교육행정 당국이 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인 교육 체제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과 지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사서교사 배치를 통한 성과 극대화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이 갖는 다른 하나의 특성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일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 21명, 2003년에 11명을 배치하였으며 2004년에 13명을 배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998년에 배치된 1명을 합쳐서 모두 46명의 사서교사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 인원이면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사서교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인원을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에서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은 섬세한 현장 관찰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선평은 학교의 교장에 의해 잘 운영되던 학교도서관도 교장이 떠나면 문을 닫게 되는 실정을 경험하고 경영자의 의지 여부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11) 김종성, 전계서.

몇몇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 보면, 대부분 관심이 있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여 안간힘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 교장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학교도서관은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업무 추진 기본 원칙과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것은 누가 교장으로 부임하더라도 모든 학교의 도서관이 일정 수준의 규모와 운영 체제를 갖추고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²⁾.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3요소인 인력, 자료, 설비 중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라고 한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운영의 관건은 인력 요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정비하여 활성화하는 많은 학교에서 결국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마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진리로 굳혀진 사실이다.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상북도에서 전문 사서교사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사서교사를 배치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김선평 장학사는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겪은 어려움을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사서교사를 22명 신규 임용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거의 우격다짐으로, 저돌적으로, 거의 직을 걸다시피 최고 결정권자의 사인을 받아냈다. 이 일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어려움들은 오래 잊히지 않을 것이다. ‘안 된다고 그만쯤 얘기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정도는 애교에 속한다. 고개를 가로 젓는 상관 앞에서 브리핑 자료를 내밀고 안 되면 또 고쳐서 내밀기를 여러 번 거듭한 끝에 결심을 얻어냈다¹³⁾.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서교사를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더 빛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과가 의미 있는 것은 사서교사가 배치된 도서관은 외부 지원 요소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도서관 운영과 교육활동 수행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서교사 배치 문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되며 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3)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사업 추진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장학 담당자의 열정과 의지와 함께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전략에 입각하여 사업을 실천해 나간 점을 들 수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일에서부터 학교도서관 사업을 전개하는 일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김선평,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 과제,”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p.262.

13) 상계논문, p.252.

〈표 3〉 경상북도교육청 사서교사 배치 계획과 경과

연도	초	중	고	계	경과
1998			1	1	
2002	11	8	2	21	23개 지역 교육청 사서교사 1명씩 배치(기간제 1명 포함)
2003	5	3	3	11	10개 시교육청 증원 배치, 1차 배치 계획 완료
2004	7	2	4	13	13개 군교육청 증원배치, 초등학교 배치 완료
2005		5	5	10	10개 시교육청 중·고교 증원 배치
2006		5	8	13	13개 군교육청 중·고교 증원 배치, 2차 배치 계획 완료
계	23	23	23	69	23개 지역 교육청 초·중·고교 각 1명씩 배치 완료

경상북도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 계획에 따라 각 시·군 교육청별로 초·중·고교에 균등하게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서교사 배치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간 격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지역의 거점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극대화를 노리는 전략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배치된 사서교사는 자신이 속한 학교만의 사서교사에 머물지 않고 그 지역 교육청의 사서교사로서 역할하게 된다¹⁵⁾.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업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교육행정 당국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사업단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지원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다.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의 최종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추진, 지원 대상교 심사, 선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¹⁶⁾.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구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속한 전 부서의 책임자와 그 부서에서 학교도서관 사업에 관계 있는 직무 담당자 등 21명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와 같은 지원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사업이 담당 장학사의 업무

〈표 4〉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사업단 구성

역할	구성원
단장	부교육감
부단장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위원	초등교육과장/장학담당 장학관, 업무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장/장학담당 장학관,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업무담당 장학사, 사서교사 평생교육체육과장/평생교육 담당 교육정보화과장/교육정보화 담당, 행정정보화 담당 기획예산과장/기획평가 담당, 예산 담당 교육시설과장/시설기획 담당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도 교육행정 당국 전체가 관여하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14) 김종성, 전계논문, p.83.

15) 각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공공도서관의 사서 1명과 2인 1조의 업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시·군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도서관 업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평, 전계논문, p.267.

〈표 5〉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실무위원회 구성

역 할		구 성 원
위 원 장		교육국장
부위원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위원	초등	장학담당 장학관, 교장 1명, 교감 2명, 담당 장학사(간사), 교사 1명
	중등	장학담당 장학관,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교장 1명, 담당 장학사(간사), 교감 2명 (공립 1, 사립 1), 교사 3명(중 1, 고 2)
	교원단체	교총 1명, 전교조 1명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업의 실제적인 전개를 위해 ‘학교도서관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것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각급 학교 경영자와 교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업 진행을 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사 집단의 의사와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교사를 1명씩 포함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조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의견을 수용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학교 교장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상학교 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교육청 및 단위 학교별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사업이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는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2003년부터 시작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시·도 교육청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 리모델링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선정 학교수도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131개교로 나타난다¹⁸⁾.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중앙 교육행정 당국과 지방 교육행정 당국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정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교육행정 당국의 사업 의지와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앞서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6) 경상북도 교육청, 아름다운 학교도서관(대구: 동교육청, 2003), p.133.

17) 상계서, p.134.

18) 인적자원정책 조정2과, “보도자료-학교도서관 이젠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2003. 4. 9.

3. 과제

1) 현장 운영 성과 축적 및 확대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학교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확보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서교사가 배치되고 전문 전담 인력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그렇지 못한 도서관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과 개별 학교,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는 협력적이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현장 운영의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해 나가야 한다.

가령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경상북도 군위초등학교 도서관의 사례 같은 경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 학교 학생들은 요즘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보다 책읽기가 더 좋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학교에 독서열풍이 몰아친 것은 전문 사서교사가 부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독서장려 운동’을 벌인 결과라고 한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에게 우선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쉽고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자 학용품과 도서상품권 등 꾸밈한 경품을 걸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학교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축적하고 모델화하여 공유하면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서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는 과정이 된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독서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인성개발과 학력 신장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교수 학습의 성과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계수화하고 평가 분석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가치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서교사의 개척자적 활약과 자기개발 노력

현장 운영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대하는 일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사서교사들의 헌신과 자기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어려움은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과 여건이 불비하여 기본적인 운영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도서관은 보편적인 미개척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장 사서교사들은 개척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점

19) 정창규, “인터넷보다 책읽기가 좋아요,” 대구매일신문, 2003. 12. 6.

에서 지금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들의 개인적인 헌신과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사서교사를 충실하게 양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제대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전문 연구자나 교육자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된 사서교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조건에 기인하여 충실한 사서교사를 양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인정하면서 현장에 배치된 사서교사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마련하여 사서교사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로서 요구되는 교과에 대한 이해와 교수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지식 정보 자원의 구현체인 다양한 문헌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능력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교육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추고 지식 정보 전문가로서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사서교사 배치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비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사서교사들은 개척자로서, 선구자로서 자기 혁신의 노력과 열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교육행정 당국의 안정적인 장학 체계 확립

현장 사서교사들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 당국의 안정적인 장학 활동이다. 지금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이 도 교육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장학 활동에 의해 전개되어 왔듯이 이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당국의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도 교육행정 당국의 기획과 지도와 시군 교육청의 실제적인 장학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 운영의 기본 규정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현장의 수준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고 개별 학교의 경영자와 교사, 학교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 사서교사와 긴밀한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하여 현장의 문제와 장애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도서관 현장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현장의 사서교사와 학교의 구성원들이 담당하지만 지역 전체의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가는 역량은 교육행정 당국의 장학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의 인식 개선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자의 이해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학교 운영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자가 학교도서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하면 학교도서관은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경영자가 무관심하고 인식이 낮으면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행정당국에서는 학교 경영자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서교사는 상시적으로 학교 경영자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교과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체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일반 교과교사들로부터 외면 당하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립하기도 어렵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는 원리에서 보면 교과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사서교사나 학교 경영자,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교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 학교도서관을 홍보하고 계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사들을 이용자로 유인하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도서관 고객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코너를 만들어 교재연구를 위한 자료를 비치한다든지 하여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방문하는 고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자료구입을 위한 필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에서는 학교경상운영비 5%의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3%의 자료 구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좋은 자료가 없으면 그 기능을 원천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 또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만 좋은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고 학교도서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학교 밖의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동문회나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회 등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예산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공적인 예산 영역 안에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위해 교육행정당국과 학교 당국이 같이 노력해야한다.

IV. 결론-SWOT 분석을 통한 지역단위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공 요건 탐색²⁰⁾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과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은 지역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주체와 방법,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해 보면 지역 단위 학교도서관 사업의 성공 요건을 추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우선 학교 밖의 민간 영역에서 시작한 교육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열정과 여론 주도 능력이 큰 장점으로 발휘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요구와 설득에 따라 지방행정 당국이 재정지원을 담당할 것도 큰 성과이며 민관협력 사업으로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동 주도세력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과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장려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좋은 환경 조건이 되며 교육행정 당국과 별도로 사업을 전개하고 지방 정부의 지도층이 교체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격과 환경을 SWOT 분석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그 장단점과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은 교육행정 당국의 자발적인 교육환경 개선 의지에 그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자발적 리더십 · 지역 민간 조직을 통한 효과적 전개 · 지방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 사회적 여론의 지지 획득 	S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부족 · 파견 인력의 신분과 처우 부실 · 운동 조직의 제도화 실패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 활동 공간 확대 · 범국가적 교육 환경 개선 노력 · 국가 학교도서관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정부의 주기적 교체 · 교육행정 당국과 중복 사업 전개 · 학교 비정규직 문제 대두

〈그림 1〉 SWOT 분석을 통해 본 경기도 학교도서관 운동

20) SWOT 분석은 조직의 내적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외부 환경의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Threat)와 대조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나의 조직적 활동으로 상정하고 그 강약점을 외부 조건의 요소와 비교하여 운동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본다.

기를 두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 당국이 학교도서관 문제를 장학 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사서교사 배치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사업이 교육행정 당국의 업무로 전개되면서 교육계 외부의 여론을 환기 시킨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효과와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 내부에서 소수의 인적 요소가 사업 시행의 핵심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한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²¹⁾. 또한 현재 중앙 정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도서관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은 이 사업의 기회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 장학 일선에서 학교 일선으로 옮겨간 점과 사서교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교과교사 정원의 한계에 부딪혀 결코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 당국의 주도 · 사서교사 배치를 통한 성과 극대화 · 체계적 장학 활동 전개 	S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여론 조성 부족 · 사서교사들의 과중한 임무 · 하향식 현장 개선 사업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학교도서관 사업 시행 · 현장의 성과 가시화 · 학교도서관 지향적 교육 방법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핵심 인력의 이탈 · 일반 교과교사 정원 부족 · 학교 현장의 인식 저조

<그림 1> SWOT 분석을 통해 본 경상북도 학교도서관 운동

SWOT 분석을 통해서 더욱 더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과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지역 단위 학교도서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공적 요건은 교육행정 당국이 이 일에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맡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과 실천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시점에서 볼 때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경기도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과는 제도적 성과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 설치, 사서교사 배치, 예산 확보 등 운영에

21) 경상북도의 학교도서관 사업을 주도한 김선평 장학사가 2003년 9월 일선 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사업의 핵심 인력이 행정당국에서 이탈한 2004년 이후의 역량이 어떻게 변할 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축된 장학 체계의 지속적 가동과 능력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필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 성과를 가능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운동의 외형적 규모나 일시적 성과보다는 실제적인 제도적 개선과 보완에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 문제를 이슈화하고 의제화하여 정부의 사업으로 부각시키는 전략도 중요한 요소로 주목해볼 수 있다. 가령 경기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정부 당국과 현장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변화된 사회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교 밖의 참여와 개입이 일상화되는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필수적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외부의 관심과 이해를 전제로 했을 때 교육 환경의 개선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도서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내부의 인력으로는 경영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면이 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행정 당국과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는 학교 경영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업무로 자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한 학교도서관 운동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단위에서 전개되는 학교도서관 운동은 계기와 방법에 상관없이 그것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의 다양한 역량을 모으고 여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건이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그 방향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